

오스트리아 大學制度와 비인大學校

尹 庸 鎬
(高麗大 獨語獨文學科)

1. 오스트리아 大學制度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원테 명칭은 오스트리아 리 연방 공화국(Bundesrepublik Österreich)이다. 영어식으로 오스트리아(Austria) 그리고 한자식으로는 埃地利로 불리며 왕왕 濛洲를 가리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동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서독, 동독, 스위스와 더불어 독어 사용 지역으로 면적은 우리 남한보다 약간 큰 83,855 km² 이며 인구는 우리의 서울 인구보다 훨씬 적은 750 만 명이다. 이 나라는 Wien, Oberösterreich, Niederösterreich, Steiermark, Salzburg, Burgenland, Kärnten, Voralberg 그리고 Tirol 로 불리우는 9 개의 연방 州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현재 18 개의 대학들이 설립되어 있고, 이들 대학에 산재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작년 겨울 학기(WS 1986/1987) 통계에 의하면 외국 학생까지 포함해서 총 169,000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8 개의 대학들 가운데 연방 수도인 Wien 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 8 개로 가장 많으며 학생 수자도 전체의 $\frac{1}{3}$ 을 넘는 6 만 명 선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어권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비인대학교(Universität Wien, 1365)를 비롯하여 비인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Wien, 1812), 비인상

과대학(Wirtschafts Universität Wien, 1919), 비인농과대학(Universität für Bodenkultur Wien, 1872), 비인수의과대학(Veterinärmedizinische Universität Wien, 1896), 비인조형예술아카데미(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Wien, 1872), 비인응용예술대학(Hochschule für angewandte Kunst in Wien, 1948), 비인음악 및 공연예술대학(Hochschule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in Wien, 1909)으로 모두가 국립대학들이며 사립은 없는 나라이다. Wien 다음으로 대학이 많이 있는 곳은 Steiermark 州로 Graz 에 있는 Graz 대학, 공과대학, 음악 및 공연예술대학과 Leoben 에 있는 광산대학교(Montanuniversität Leoben)를 합쳐 4 개이며, Niederösterreich 州 수도 Linz 에는 Linz 대학과 예술·산업대학(Hochschule für künstlerische und industrielle Gestaltung)이 있고 Salzburg 州에 Salzburg 대학과 음악 및 공연예술대학 그리고 Tirol 의 Innsbruck 와 Kärnten 의 Klagenfurt 에 각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이들 12 개의 종합대학교와 6 개의 예술 단과대학은 360 개의 전공 학과와 500 여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에서도 대학들의 교육 제공은 전공 부분에서는 새로운 학과의 신설을 통해서 또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대학의 설립

을 통해 확대 일로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오랜 전통에 묻혀 있던 대학들에 대해 현대화 욕구가 상승하게 되고 그에 부응하는 대학의 조직과 행정 및 교육과정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많은 법령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특히 대학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입법들로는 1975년에 재정비된 대학조직법(Universitätsorganisationsgesetz : UOG.)과 1966년의 대학교육법(Allgemeines Hochschul-Studiengesetz : AHStG.) 그리고 1973년의 학생회법(Hochschulerschaftsgesetz)과 1969년에 제정된 교육장려법(Studienförderungsgesetz)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그러나 급변하는 교육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3년 차이로 또는 매년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실정이다.

대학의 운영은 위의 대학조직법에 따라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은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Akademische Senat)라는 기본 조직을 갖는다. 이의 구성 방법은 총장, 부총장을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의 대변자들로부터 사무직, 학생, 교직원 단체의 대변인들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대학의 모든 소속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의 조직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변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표 1〉 교육 기간

Doktorgrad	Doktoratsstudien (2-4 Sem.)	Aufbaustudien (1 Sem.)	Berufsbezeichnung (직업증서)
Diplomgrad Magister	Diplomstudien (8 - 10 Sem.)		
(1. Diplomprüfung)		단기교육 (5-6 Sem.)	직업증서
성취 대학생			

대학교육의 기본 원칙은 대학교육법과 대학조직법에 다음처럼 규정되어 있다.

- ① 학문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자유
- ② 연구와 가르침의 연결
- ③ 학문적 학설과 방법의 다양성
- ④ 배움의 자유
- ⑤ 교수·학생 및 대학 소속원들의 공동 협력
- ⑥ 법에 따른 대학 자율성

이중 맨 처음의 항목인 Freiheit der Wissenschaft und ihrer Lehre란 문구는 비인대학의 신관 건물 1층 계단 벽에 금속 글자로 걸려 있어 대학교육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교수의 충원은 Habilitation을 마쳤거나 다른 대학에 이미 교수직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초빙은 일정 기간 또는 정년까지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전직이나 파면은 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교수는 다른 대학의 초빙에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대학 지원자들의 입학은 Abitur(고등학교 졸업 시험)를 마쳤거나 국제적으로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중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오스트리아인이면 어느 대학이건 학업이 개방되어 있다. 왜냐하면 1972년 등록금 폐지 결정에 따라 모든 대학이 국

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이며 또 Numerus Clausus(정원제 입학 허가)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학과는 전공 분야의 특수 성격에 따라 적성 시험이 부과되고 그것이 입학을 좌우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학업 성취 단계에 따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지며 학기 수로 계산된다.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과에서는 5~6 학기의 단기교육으로 끝나고 증서를 받으며 학위를 목표로 하는 정규 학과에서는 대략 4 학기 후 중간 평가(1. Diplomprüfung)가 부과된다. 다음 8~10 학기제에 졸업 시험을 치루고 Diplom 이나 Magister 학위를 받는다. 다음 2~4 학기에 걸쳐 박사과정에서 Dissertation 을 쓰고 Approbation(승인)을 받은 뒤에 Rigorosum 을 통과하고 Doktor 학위를 받는다. 혹은 교수가 되려는 경우에는 Doktor 학위를 받고 10년 이내에 Habilitation 을 마쳐야 한다. 위의 경우는 법정 학기 수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독문학의 경우, 1986/87 겨울 학기 정규 학생 수가 2,357 명인데 졸업생 수는 43 명으로, 법정 최소 수업 연한은 8 학기로 되어 있으나 박사학위까지 이들의 실제 수업 학기 수는 평균 18.2 학기로 집계되어 있다.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경우는 극빈 학생으로 그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적인 도움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경우 1년에 45,500 쉐링, 결혼한 경우 51,500 쉐링이다.

학기는 겨울 학기(Wintersemester)가 입학 학기이자 첫 학기이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일까지고, 한 달간 휴가를 가진 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두번째 학기인 여름 학기(Sommersemester)다. 겨울 학기중 휴가로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3주 정도 있으며, 여름 학기에는 부활절(osterferien) 휴가가 3~4주, 그리고 pfingsterferien 이 있다.

Abitur 를 갖지 못한 경우 대학 입학 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첫

째로는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준비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최소 10개월을 거쳐 자격 시험에 합격한 뒤 전형 위원의 適否 판정 및 24살의 성년을 조건으로 입학 자격을 얻는다. 둘째로는 직업 학교를 택했던 관계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Abitur 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원할 경우 직업 졸업 시험 합격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지원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외도 인정된다. 이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정규 Abitur 를 가진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리스어, 라틴어, 수학, 철학 중에서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의 시험을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기내에 추가 또는 보충 시험(Zusatz-und Ergänzungsprüfung)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지정된 학기내에 합격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정식 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 1957년 유럽 협약에 따라 Belgien, BRD, Dänemark, Frankreich, Griechenland, Großbritannien, Irland, Island, Israel, Italien, Jugoslawien, Luxemburg, Malta, Neuseeland, Niederlande, Norwegen, Portugal, Schweden, Spanien, Türkei, Zypern 등은 쌍방간 동등하게 대학 입학 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후 Finnland, Bulgarien, Lichtenstein, DDR, Rumänien, Ungarn 등과도 같은 조건의 협정들이 뒤따르고 있다. 위와 같은 협정에 들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 오스트리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지원 대학의 전형 위원회에서 지원 서류를 검토해서 適否 판정을 거쳐 입학 여부가 통보된다.

이러한 정규 대학생 외에 비정규 학생(außerordentlicher Hörer)과 청강생(Gasthörer) 제도가 있다. 비정규 학생은 정식 입학이 되지 않으며 17세 이상으로, 요구되는 예비 실력을 갖춘 자로 일정 기간 강의를 듣고자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학업 과정을 마친 다음 특정 과목만 수강 신청해서 보충하는 경우이다. 청강생은 대학의 정규 학업을 마친 졸업자로 새로운 정규 학업을 마칠 의사 없이 일정 기간 강의를 들으려

고 하는 경우다. 두 경우 모두 그 강의에 대한 시험은 허용되지 않는다. 넓은 강의실에 교수보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청강생으로 이른 아침부터 맨 앞 줄에 줄지어 앉아 있는 모습은 우리 동양인에게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강의는 대부분 두 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많은 전문 명칭들을 갖고 있다. 일별해 보면 ① 전공 분야에서 중요한 지식과 교수의 의견이 피력되거나 혹은 특정 연구 분야의 최종 지식이 보고되는 Vorlesungen, ② 강의 내용에 대한 시험 준비를 위해 교수와 직접 자료를 가지고 복습하는 Repetitoren, ③ 학문적 작업의 기본 지식을 전달하거나 전문 분야로의 입문을 위해 특정 사례 연구·보고·토론을 다루는 Proseminare, ④ Proseminare를 거친 학생들의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 참여자는 필기나 구두의 논문 발표를 해야 하는 Seminare, ⑤ 특별 연구 Seminar로 Diplom이나 Doktor Arbeit를 하는 학생이 필수로 참가해서 각자 자신의 학위 논문 Thema를 가지고서 지도 교수와 토론 및 지도를 받는 Privatissima, ⑥ 구체적 문제의 제기, 방법, 연구 기법의 공동 또는 그룹별 해결 작업을 유도하는 Arbeitsgemeinschaften, ⑦ 교수를 직접 상대로 한 토론과 질문 형식의 강의인 Konversatorien, ⑧ 실습이나 수공적 연습을 통해 직업 소양을 기르는 Praktika는 예비 실습, 학기 실습, 평상일 실습으로 이어진다. ⑨ 실제 전문을 통해 강의의 이해를 깊게 하는 현장 학습 여행인 Exkursionen, ⑩ 2개 과 이상의 학과에서 구체적이고 전공에서 서로 겹치는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방법 및 기법의 사용을 통해 학문적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Projektstudien, ⑪ 예술 방면의 대학에서 개인적 재능의 발전을 위해 각 학생에 맞추어 개인별 교수를 하는 Einzelunterricht, ⑫ 기술적·수공적 작업을 통해 학생들이 재료를 다루는 숙련성의 능력을 기르는 Werkstättenarbeit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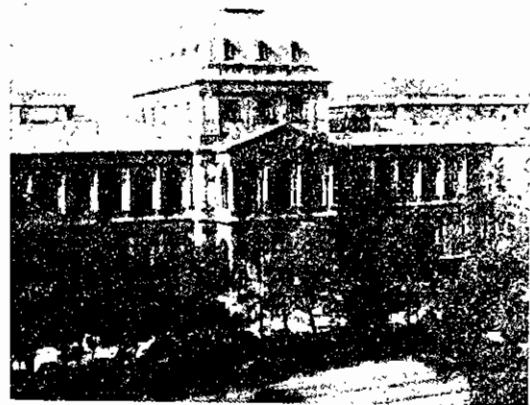
강의에 이어 시험은 구두, 필기, 실기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으로 행해진다. 구두 시험은 공개가 원칙이다. 시험은 또 목적에 따라 Kolloquien, Aufnahmeprüfungen, Ergän-

zungsprüfungen, Abschlußprüfungen, Diplomprüfungen(교직도 포함), Rigorosen, Vorprüfungen 등으로 나누어진다. 평가는 합격의 경우 sehr gut, gut, befriedigend, genügend로 성적이 구분되며, 불합격의 경우 nicht genügend로 표시되는데 그 이유가 뚜렷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불합격된 학생은 세번까지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에 대해서는 교수와의 상의하에 여러 가지로 융통성이 주어진다.

2. Wien 대학교

Wien 대학은 14세기 구라파에서 학교의 전성기와 독일 왕 Karl IV세에 의해 1348년에 세워진 Prag 대학에 자극되어 Habsburg 家の Rudolf IV세가 그보다 17년 후인 1365년 3월 12일 설립했다. Passau 주교의 동의와 교황 Urban V세의 승인하에 Alma Mater Rudolfina란 명칭으로 시작되었는데 초대 총장은 Rudolf IV세의 위임을 받고 Rom에서 대학 설립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애를 썼던 Albert von Sachsen으로 원래는 파리대학(Pariser Universität) 교수였으며 총장도 역임했던 唯名論 철학자였다. 체코가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을 때는 Prag 대학이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랜 대학이었으나 지금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권에서 Wien 대학이 가장 오래된 대학이 된다. Albert III세 때 교황 Urban VI세에 의해 가톨릭 신학부 설립이 허용되고 1386년에 첫 Promotion이 거행

▼ 비인대학교 본관



되었다. 대학의 조적은 이미 1200년경에 설립된 파리대학을 모범으로 따랐다. 15세기 초반에는 자연과학이 번성했고, 특히 천문학(Astronomie)에서 Gmunden, Peurbach, Regiomontanus 등이 활약을 했다. 인문과학에서는 당시 비판을 받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맞서 1451년 이후 교황 Pius II 세에 의해 Wien에 전파된 Humanismus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1497년에는 황제 Maximilian I 세에 의해 유명한 인문주의자 Celtis가 초빙되어 Collegium Poetarum이 설립되고 여기에 Vadian, Zwingli, Hutten 같은 인물들이 모여 들었다. 1519년 이후 터키 침공과 Luther의 종교개혁 영향으로 독일 Wittenberg에 설립된 신교 대학과의 경쟁으로 쇠퇴하기 시작해서 1530년에는 교수와 학생 부족으로 해체 위기를 당한다. 그래서 Wien 대학은 1533년부터 1554년까지 황제 Ferdinand I 세의 단안에 의해 국가 교육 기관으로 전환되고 재정과 교육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 신학부는 구약·신약·종합신학으로 나누어지고 학업은 종래의 12년에서 5년으로 제한된다. 특히 가톨릭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1537년 Wittenberg 대학 출신 Doktor들의 거절, 1546년 교수들의 신앙 시험, 1548년 외국에서의 학업 금지 등을 정했으나 이 규정들은 자주 바뀌거나 일부는 폐기되었다. 황제 Maximilian II 세(1564~1576) 때는 1551년의 Jesuiten 초빙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나 국가 전체에 신교가 우세를 떨쳤다. 그래서 많은 신교 교수들이 Wien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1579년 Klesl 총장이 들어서고 1581년 로마 가톨릭 신앙이 학위 수여의 조건으로 규정되는 등 신교에 대한 대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Jesuiten과 대학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1626년 이후에는 오직 가톨릭 교도들만 대

학에 남게 되었다. 이 시기는 가톨릭과 신교의 30년 종교 전쟁(1618~1648) 기간으로 가톨릭이 국교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신교도들이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후 Maria Theresia(1740~1780) 여왕과 아들 Josef II 세의 治下에서 계몽적인 절대 군주 정신에 입각한 대폭적인 개혁이 대학에도 이루어진다. 동시에 대학의 자율권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1784년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이었던 대학병원 Allgemeines Krankenhaus를 개업했다. 1848년 시민 혁명을 겪으면서 대학에서 가르침의 자유, 배움의 자유가 천명되고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낡은 제도들이 개혁된다. 지금까지 대학 운영을 의결하던 교구장 회의는 1873년부터는 교수들 가운데서 종교에 관계없이 선출된 대학평의회로 대체되고 1878년에는 처음으로 여성들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적대 관계에 있었던 신교 신학부 수용이 1921년 A. Dopsch 총장 때 결정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번성을 구가하게 되었다. 1938년과 1945년의 2차 세계 대전 기간에는 많은 교수들이 Hitler 治下에서 정치적 이유로 제거되고 대학은 폭격으로 상당 부분이 파손된다. 1951년 다시 재건되고 1965년 600주년 설립 기념일을 맞았던 Wien 대학은 그간 발전을 거듭해서 1984년에는 학생 수 50,000명을 넘어섰으며 3,800명의 교수진(Professoren, Dozenten, Assistenten, Lektoren)과 약 1,600명의 사무 및 고용직을 보유하고 있다. 8개의 단과대학에 108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169개의 Instituten과 Kliniken이 대학 본부를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의 총 합계 규모는 187,000m²에 달한다. 국가는 이의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7억 쉐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명문 대학으로의 변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